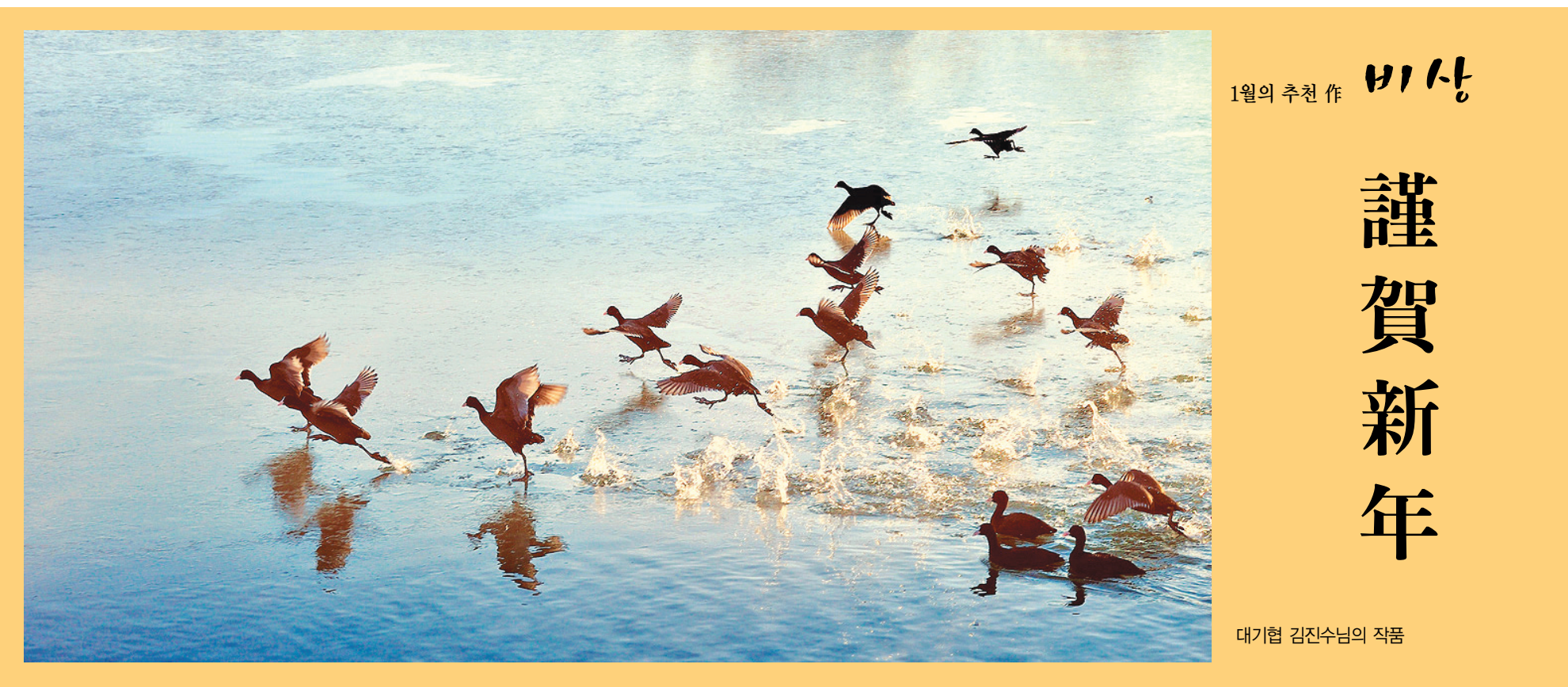




역사의 아침은 밝아오고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한기총, 제19대 대표회장 두 후보 열띤 선거전 돌입

기호 1번 현대교회장 홍재철 목사, 기호 2번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철 목사, 이하 선거관리)는 10일(금)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제19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앞

서 선관위는 회의 결과에 따라 기호1번에 홍재철 목사, 기호 2번에 엄기호 목사를 각각 발표하였다. 기호 1번 홍재철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목적으로 열심히 한기총을 위해 섬기며 일했다.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제19대 한기총 대표회장



에 어김없이 총회 날짜가 정해지고 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저는 당위성을 가지고 한기총 제19대 대표회장 후보로 나오게 되었다.”며 “제19대 한기총 대표회장

이승철 목사는 모 후보의 5억 투입이란 금권선거 의혹이 있다는 폭탄 발언으로 충격을 주었으나 그는 곧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며 곧 진화에 나섰고 자리를 떠났다. 2년 전 한기총을 힘들게 했던 대표회장 금권선거의 악몽이 한국교회에 큰 후유증으로 양극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선거위원장 이승철 목사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단

역사의 아침은 밝아오고

실로암의 여명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축복의 복된 아침이 우리를 맞이하네

가슴 조이며 기다린 세월

이제 그 응답을 알리는 아침은 밝아오고

밤새 온 땅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흰 눈처럼

축복의 아침과 함께 응답의 소식을 전해주네

반드시 이루어라 하신 주님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온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득안고 우리에게 다가와

축복의 복된 새 아침을 열어주네

이제 그 복된 역사의 아침은 밝아오고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태양이 떠오르니

지난밤의 아픔 아픔과 함께 사라지고

축복의 새 아침과 함께 주의 역사 시작되네

피종진 목사 1월 국내·외 성회 일정

1(수)~ 3(금) 부천 사랑의교회(정민철 목사) 신년축복성회 ☎ 010-3224-2345
3(금) 오전 국민비전부흥사협의회
6(월) 오전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02)436-1777
7(화) 오전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수양관(원장 피영민 목사) ☎(03)772-6015
7(화) 저녁 수원 서부영광교회(조재자 목사) ☎ 010-9991-0191
9(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신년축복대성회 ☎(04)852-2211
10(금) 오전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
12(주) 오후 인천 초원교회(김태곤 목사) ☎ 010-9492-1770
13(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영문 목사)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3(월)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14(화) 오후 오산리교회(김기남목사)도원(원장 국해현 목사) ☎(03)947-0091
주최: 기도처유아카데미(이사장 피종진 목사, 원장 정요한 목사)
연세대학교 총동문 신년하례식
16(목) 오전 인천 성원제일교회(박영환 목사) ☎(032)578-0591
17(금) 월야 남서울중앙교회(이현근 목사) 제작세미나 ☎(02)3411-9191
18(토) 오후 오산리교회(김기남목사)도원(원장 국해현 목사) ☎(03)947-0091
주최: 국민비전부흥사협의회
제181차 해외성회(181st Overseas Assembly)
20(월)~22(수) 미국(U.S.A) 앨버트로스(김성신 목사) ☎(714)828-8033
26(목)~28(주) 미국(U.S.A) LA한인교회(한기총 목사) ☎(714)446-6200
28(화)~29(수) 총동문교회(원장 김승자 목사, 담임 고충진 목사) ☎(043)853-3900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8
11-3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소진우 목사 2013년-2014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

5-1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2-1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7-20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1-2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4-2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2년 9월

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5-7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8-10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4-1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7-1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2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3-2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2년 10월

8-10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4-1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7-1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2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3-2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6-2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2년 11월

3-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6-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9-1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2-1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5-17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8-20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1-2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4-2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2년 12월

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5-7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8-10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4-1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7-1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2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3-2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1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2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3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4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5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6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7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8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10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11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3년 12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4년 1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4년 2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4년 3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4년 4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4년 5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4년 6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4년 7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014년 8월

1-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7-9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3-15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9-2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22-24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H·P : 010-2956-9191, 050-5555-9191
E-mail : Keyone209@hanmail.net

표준웨신 비전2014 신년하례식 가져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적 신앙으로 건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예능부흥사관학교 1주년 기념 및 수료식 가져

하나님의 소명을 귀중히 여겨 예수님 중심이 되라



총회장 이홍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1월 3일(금)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백악관 웨딩문화원 250여명의 총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14 웨신총회 신년하례회 감사예배를 드렸다.

부총회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가 예배를 인도하고 웨신총창

단의 특송과 회록서기 정일량 목사가 성경(왕상 18:37-38)을 봉독하고, 총회장 이홍규 목사는 "새해의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이홍규 목사는 신년사에서 2014년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으며 사랑과 우애로 서로를 격려하며 차오르는 꿈과 소망을 나누는 총회원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나의 나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본래의 지을 받은 형상을 회복하는데 총성되게 여겨서 내게 더하신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2014년 한 해는 교단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대외적으로 표준 총회 웨신의 자리를 확실히 굳혀 나가고, 안정 속에서 더욱 성장해 가는 교회와 노회, 총회가 되었을 때 이는 세상을 섬기는 빛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혼잡스런 신학과 신앙관을 재정립하고,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적 신앙으로



건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자고 했다.

이 총회장은 또 2014년 한 해는 표준 웨신총회로서 모두가 할 일이 많은데 교회와 노회의 성장, 총회회관의 기금조성을 위해 집중하면서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하다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했다. 이어 부회계 양덕심 목사가 봉헌기도를, 용인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기획처장 김성욱

교수가 한동숙 이사장을 대신하여 축하하고, 총무 신연창 목사는 광고 및 인사에서 "축복과 소망을 나누면서 표준웨신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세배를 하고, 새해는 더욱 건강하며 소망을 크게 이루자고 했다. 또한 금년 한 해 변함없이 웨신총회와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다. 이어 직전총회장 이재갑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하례식은 부총회장 이영풍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영광교회(부총회장 조강수 목사)의 웅장한 찬양단의 축가가 이어지고, 자문위원 임철환, 이 규, 이이중 목사의 새해 덕담을 나누었으며, 케익절단식을 갖고 자문위원 김춘택 목사의 오찬기도로 만찬을 즐기며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한편 웨신총회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2월 13일 강도사고시가 시행되며 고시청원 마감은 1월 20일까지라고 했다. 또한 웨신총회 로고가 WSO 바뀌었으며, 홈페이지는 <http://ws21.org>로 변경되었다.

예능부흥사관학교(교장 김해자 목사)는 1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예배 및 수료식을 지난 27일(토) 인천시 남구 중의 1동 소재 등불교회에서 거행되었다.

윤광석 목사(사무국장)의 예배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김영중 목사가 기도, 우재성 목사의 특송이 있었으며, 꾸미오리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교장 김해자 목사(충만교회)는 왕하2:1~11절의 말씀을 인용 "엘리아를 끝까지 따른 엘리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교장은 '하나님의 소명을 귀중히 여기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복을 이 중심인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새로운 결단과 올바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예능부흥사관학교 제1기 수료자는 김선우 목사, 김성립 목사, 김영애 사모 등이다. 이어 본교 대표회장 광명민 목사는 "설교학 : 김장렬 교수, 교의학 : 이창광 교수, 주경신학 : 김성립 교수, 영성학 : 김장렬 교수, 비유와 상징 : 박영화 교수" 등을 소개하고 2014년도 교수로 임명했다.



또한 한국교회 위기상황에서 앞서 변화되는 예능부흥사와 영적인 삶을 통해 시대의 부흥사 자질을 길러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다하는 사역자요 부흥사가 되길 바라며 정연호 목사, 정기남 목사(지저스 타임즈)가 축하했다.

축사에 나선 정기남 목사(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는 수료자를 향해 축하를 했다. 이어 교전 15:58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임이라'는 말씀으로

부흥사의 자격은 ?... 1) 병든 교회, 병든 사회, 병든

양들을 치유하고 수술시키는 의원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2) 몇 갑절이나 더한 영권을 가진 부흥사가 되라고 했다. 부흥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교회의 문제점과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충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권이 필요하다면서, 영권이 약하면 성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3) 자신은 철저히 죽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라고 했다. 사역자가 변화되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흥사의 자질은 양들을 고치며, 교회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곳 예능부흥사관학교를 통해 재충전을 위한 훈련을 받았으며 자부심과 능력을 힘입어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해 크게 씩임 받는 부흥사가 되기를 바라고 축하했다. 이어 주찬양 목사의 축가와 우재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인연 박종만 기자



예장고려 2014년 시무예배 후 “한기총 탈퇴 결정”

예장 고려총회(총회장 천 환 목사)는 1월 2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3층 (더 스카이 온)에서 2014년도 시무예배를 드렸다.

고려총회는 경향교회 석원태 원로목사의 불륜사건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결국 경향교회와 원로목사는 교단을 탈퇴하고 필리핀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석기현 목사와 경향교회는 교단탈퇴를 선언하고 고려신학교와 경향교회를 끌어내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교회는 12월 29일(주일)에 당회에서 전격적으로 17명의 장로를 제명하였다. 이에 따라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반고소의 정식으로 송구영신예배가 400여 명의 성도들이 별도로 개혁고려경향교회단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장 천 환 목사와 관계자들은 경향교회 목회회가 공회 재산인 교단 신학교를 강탈해 간 것은 반드시 교단으로 돌려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총회는 순교자의 신앙을 계승하고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운동을 지속적 으로 전개하여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고 가장 아름다운 교단으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노력하며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다.

고려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용 규정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 비상대책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비대위), 제2조 제3조 생략,



총회장 천 환 목사

제4조(활동기간) 본 비대위의 활동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고 밝혔다.

그 외 제2장 위원과 임원 및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과, 제3장 전문분야별 업무 6가지 항목을 두고, 제4장 회의,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 등을 신설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부총회장 원현호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며 서울북교회장 허예준 목사가 기도, 서기 이상용 목사가 성경봉독(딤후 2:14-19)을, 총회장 천 환 목사는 "코람데오의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설교했다. 총무 김장진 목사의 광고, 전총회장 박찬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고려총회 비대위는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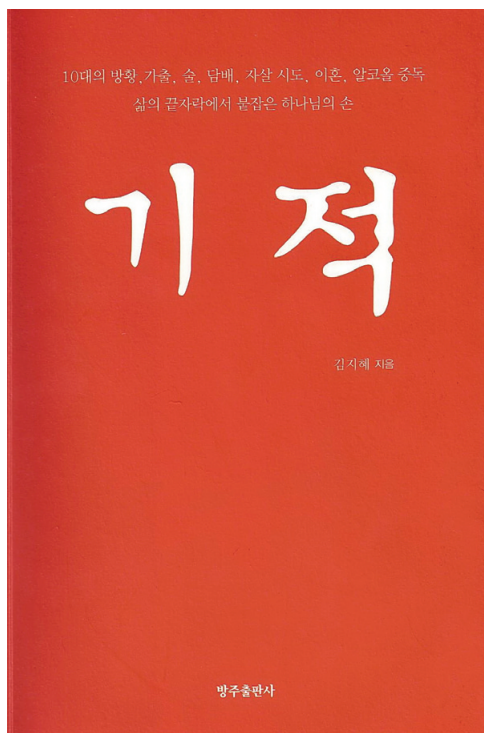


운명을 위하여 공석이 된 임원을 보선하고 회계 이동준 목사(회록서기 겸), 부회계 손정철 장로를 임명했다. 또한 총회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한기총 탈퇴의 건은 2014년

1월 1일자로 실행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본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했던 류광수, 박윤식 등을 영입함으로써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지었다고 했다.

김지혜 목사 간증집 기적



탕자의 삶,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가 되어

10대 때의 방황, 알코올 중독과 이혼, 가출, 자살 시도
김지혜 목사,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기적... 하나님의 손
인생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하나님의 손이 없었더라면 알코올 중독과 밤배, 가출과 이혼, 자살 시도 등 10대의 방황으로 김지혜란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김지혜 목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원을 개원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는(송파방주기도원 원장)김지혜 목사에 대해 이 책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결국은 실망과 좌절로 자신의 인생은 건장할 수 없이 망가지고 자살 직전까지 갔던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 목사된 신앙간증집이 출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넘쳐나는 책을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주금식기도원

T.070-8162-3109 H.010-4938-3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10-10 지하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odlovesyou2012>

▶교통편

전철 8호선 석촌역 7번출구에서 직진으로 10분정도
배명고등학교 사거리 육교 앞에서 롯데마트 옆골목

롯데마트
배명고등학교 사거리
육교
방주금식기도원 (지하)
석촌역 7번출구

경찰, 장례식장·장의업체 비리 특별단속 실시

제단장식 꽃·음식 재할용·화장장 편법 예약 등 중점

경찰청은 장례식장·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최근들어 부산지역 병원 장례식장에서 제단음식과 조화를 재사용



하고 장의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경향이 없는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

을 악용, 폭리를 취하는 약력업자들의 비리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종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유족을 속이고 장례식장 제단장식 꽃 및 제단음식 등 재할용 ▲장의용품 납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제공 ▲화장장 편법 예약(소위 '화장장 사재기') 등으로 업무방해 등이다.

경찰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청 또는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수사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와 같은 비리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89명 선발



경찰청은 부산청 홍보담당관실 정석모 경정 등 89명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하였다.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경무관 이상 인사에 따른 공석을 해소하여 조직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한치의 빈틈없는 설 前後 민생치안을 위해 단행한 것이다.

승진임사에 있어서는 개인의 업무성과, 직무수행능력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열성, 도덕성 등까지 일선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특히, 경찰 조직의 절대다수(96%)를 차지하고 있는 경사이하

임직자들의 사기진작과 현장 치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사이하 임직자를 23명 선발, 우대하였다. 그리고 창경 이래 최초로 여경 3

명을 선발, 향후 조직 내 여경 관리자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끝으로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법질서 확립', '민생안정', '4대약근절'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일선경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수사.형사 등 과장 18명(20%)을 선발, 그간의 치안성과와 현장 치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케 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 총경급 전보 등 후속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인사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여성분들 “택시에 스마트폰만 대면 안심 귀가”

여성분들 늦은 밤 택시 타려면 불안하다. 서울시가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택시정보를 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신개념 안심귀가 서비스'를 내일부터 실시한다.

늦은 밤 귀가 길에 납치 살인, 성폭력 등 많은 사건들이 피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어 여성들이 심야 귀가하러면 불안하지만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성들의 안심 귀가를 책임진다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택시에 부착된 감지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보호자에게 문자가 자동 전송되면서 여성이 승차하고 있는 차량 번호와 회사 연락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된 지도까지 전송

된다고 한다. 이종 중 달라진 위치도 알려 준다고 한다.

이를 가능케 한 건, 지름 3mm 크기의 NFC, 즉 근거리 무선통신 칩. 여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칩에 담긴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는 기술이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NFC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한다. NFC가 내장되지 않은 스마트폰과, 사용자가 20%에 이르는 아이폰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현재까지 전체 택시의 23%에만 칩이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시험 실시해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할 방침이다."고 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늦은 밤 여성들의 안심귀가 서비스가 확대될 것 기대해 본다.

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늦은 밤 여성들의 안심귀가 서비스가 확대될 것 기대해 본다.

우리 농가 지키고 통일선교와 민족복음화를 향해 성큼 다가서는 한해를

201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고 꿈을 꾸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거룩한 존재인 인간만이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2014년도 우리 모두가 꿈을 꾸고 목표한 것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 한해는 우리 농가의 시름이 덜어지고 농민들의 환한 웃음을 보고 싶습니다. 세계농업강국의 거센 수임 개방 압력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쌀 소비 감소 등이 우리 농가를 위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쌀의 품질 개

발이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쌀 식품 개발 등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쌀 소비는 오히려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요, 우리의 역사요 문화이며, 경제와 안보인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말 사람나눔복음살운동본부가 발족되어 2014년 본격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농가를 지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을 실천하면서 통일선교와 민족복음화운동을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새해에는 절망가운데 있던 분들이

소망을 찾고, 메마른 심정으로 외로움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영·육간에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나눔복음살운동본부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 헌신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4년 천만 기독교인들의 목표와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재창 목사

한기총 임원들, 양화진과 현충원을 방문하고 헌화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 임원 50여 명은 8일(수) 양화진과국인선교사묘원과 국립서울현충원을 각각 방문하고 헌화하였다. 2014년을 맞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선교사들의 묘원과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찾은 임원들은 이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한국기독교를 위해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였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선교사님들이 뿌린 눈물과 희생의 씨앗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있게 했으며, 부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며 "성전의 한계가 둔화된 한국교회는 다시금 선교사님들의 정신과 간절함을 기억해야 하고, 그 옛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현재 한기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여 한국기독교의 대표적 연합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대사회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화 후 이승렬 목사(공동회장), 윤종관 목사(공동회장)는 '한국교회와 화합과 부흥을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각 기도하였다.



謹賀新年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특별예배나



강사 손기대 신학박사 (본지 교인)

- 강연내용
 -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23)
 -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 (3) 노아의 배를 왕관 인자의 배를 인다(마 24:37)
 -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으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행: 작은 구름의림 선교회
- 강사의 저서: 20 여종 특별알림
- 참석자 전원에게 "인약의 무리, 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견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교회

■ 표어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담임교역자: 이영풍 목사 부교역자: 박용선 목사
협동교역자: 이천희 목사 파송선교사: 김상인, 주현
사무장로: 이정환 은퇴장로: 오병희
안수집사: 구경희, 이재만 교육전도사: 이윤주
반주자: 이용주

교회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9 (02)443-5153
목사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7길 19 (02)417-2848
H.P 010-6861-3927, 010-6289-2291
빛교회 카페 http://cafe.daum.net/holylightchurch

웨스트민스터 순천신학교(총회인준) 모집학과 및 자격특전 "정통 신학의 요람"

신학부	학과	학제	자격
신학부	신학과 목회학과	8학기	고졸 세례받은 자 학력제한없음
신대원	신학과 목회학과	4학기	신학부 졸업 및 예정자
특수 목회반	-	8학기	1. 청년회원 및 장로회의 예정자 2. 퇴임후 30년을 선교사나 목회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자
평신도 성경강좌	-	4학기	전로 권사 집사 직분자

■ (수시개강)

- 본 신학교는 한국장로교단이 사용하는 대소요리문답의 신조를 신봉하는 정통교단이며 한국교회를 리더 하는 표준교단으로 우수한 최고의 교수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본 교단은 한기총과 한장년 가입교단입니다.
- 아동 청소년 복지상담 지도자 · 노인복지 심리 상담사
- 다문화가족 복지 상담사 · 도형심리 상담사
- 여성복지 상담사 · 음악, 미술심리 상담사
- 특수아동복지 상담사 · 에니어그램 심리 상담사

목사, 전도사, 평신도지도자.

후보생 수시모집!!

목사안수 및 교단가입 문의환영



학장 정준준 (H.P 신학박사)

주소: 전남 순천시 동외동 191-2
TEL 061-752-0191 HP 010-9049-3731

웨스트민스터 광주신학교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지동 578-10번지
전화: 010-2778-3731

이순희 목사 전도집회 1000명 전도 왕 세우기



강사 이순희 목사
사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부총장
오산리기도원
영평 한림산 기도원 강사

할 수 있다 전도 1000명
하면 된다 전도 1000명
해보자 전도 1000명

1000명 전도 왕 세우기 전도집회
찬양과 찬양운동 영성집회
신유, 예언, 능력, 기적 집회
성전건축과 재정, 전도 부흥집회

날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도는 물려 옵니다.



집회문의 010-7730-0191 온세성교회 담임 이순희 목사

서울개혁신학교



담임 윤관 목사
경정회장
서울개혁신학교 총장



482-735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세창@ 108-1201호
☎010)3758-8905

성남개혁총회신학



담임 김정열 목사
개혁총회 총회장
성남개혁신학교 학장



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9-4 (5층)
☎041)534-8765

합동보수 2014년 신년하례“새롭게 하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번길 동천교회에서 1월 7일 오후 2시 2014년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총회서기 임상국 목사(천복복지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신년감사에 배는 주자광 목사(사천대곡교회)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풍성한교회)가 성경봉독(수3:1~6절)을,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언약재를 따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총회장은 2014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 교단이 안정되고 성장하는 한 해로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는 총회와 노회가 되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 건강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을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로 설교했다.

그러면서 이 총회장은 어렵고 힘들었던 20년의 사역을 뒤 돌아보니 현재 목회를 하는데 종합적인 것은, 고난은 내게 큰 유익이 되었고, 고난은 잘 되든 안 되든 불행이든 행복한 것이든 결국 하나 버릴 것이 없었다면서, 고난을 통해 결국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연단시키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렸다.

이어 대구노회서기 최철복 목사(반아월제일교회)가 봉헌기도를, 총회총무 조영만 목사(인천시온교회)

가 광고를,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특별기도는 서인노회장 전예희 목사(신광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어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구증경노회장 김상대 목사(창대교회), 2. 한국교회와 세계성교를 위하여 한중노회장 김국태 목사(강서교회), 3. 총회와 신학교를 위하여 경남노회장 박우신 목사(부산소망교회), 4. 노회와 전국교회를 위하여 한중증경노회장 조경일 목사(승리교회), 5. 총회원로와 노회임원을 위하여 호남노회장 김영국 목사(양지중앙교회), 6. 총회장과 동천교회를 위하여 서인증경노회장 박용순 목사(화북한교회)가 기도했다.

이성한 경찰청장 2014년 시무식 가져



이성한 경찰청장은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를 보내고 갑오년 청마의 2014년을 맞이하여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희망찬 새 출발을 향한 각오를 다지는 시무식을 실시하였다.

한기총, 2014년 신년하례예배 드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2일(목) 오전 11시 코리아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3백여 명의 정,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강영선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인사말씀과 윤종관 목사(공동회장)의 기도, 김진욱 목사(예감(웨슬레)총무)의 성경봉독과 이만신 목사(증경회장)의 설교가 이어졌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희망찬 새해가 밝았다”고 신년인사를 전하며 “지나온 한해를 돌아보면 고통스러울 일도 있었지만 즐거운 일, 좋은 일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좋은 일은 다 묻어버리고 가시 같은 일들만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한기총은 좌파적결과 전교조 해체, 동성연애 반대를 해왔으며,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 속에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기총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결같이 화합과 소통의 한기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배소서 4장 22-24절을 본문으로 “새해 새사람 새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이만신 목사는“새해를 소중히 여기고 새해를 맞이할 때 큰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된다”며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화가 있었기 때문”이고“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신 목사는“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생활을 해야 한다. 성도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며,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면서“무엇보다 화평을 깨는 자가 되어선 결코 안 된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자. 그리고 성직자라면 함부로 듣거나 함부로 말해선 안 될 것이다. 모두 거룩한 성직자가 되자”고 권면했다.

축사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회 고위원은“지난 한 해 교계는 여러

문제와 위기와 갈등에 직면했었다. 그럼에도 힘을 모아 필리핀 구호에 앞장서고, 서울역에서 1,000여명의 노숙인들에게 파카를 입혀주시는 등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올해도 그런 사랑과 섬김,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곳에서 한기총이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관석 목사(명예회장)는 격려사를 통해“하나님의 사랑은 찢어지는 사랑이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기 마련”이라며“한기총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때론 매를 맞고 찢겼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셔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승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의 격려사와 윤항기 목사(공동회장)의 특송, 이진호 목사(부회장)의 신년메시지 낭독이 있었고, 최명우 목사(총무)의 광고와 조갑문 목사(공동회장)의 오찬기도, 조경대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교연 2014년 신년하례예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2014년 신년하례예배가 지난 1월 3일(금) 오전 11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드려졌다.

한교연 산하 34개 회원교단과 10개 회원 단체 대표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예배가 기성 총회장 조일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김동엽 목사(통합 총회장)의 기도와 박창우 장로(회계)의 성경봉독, 강영린 교수의 특별한 양, 한국교회 원로 방지일 목사가

“죄인위해 오신 예수”(눅5:31~32)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이주형 목사(합신 총회장),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위해’-나세웅 목사(예성 총회장), ‘한국교회연합과 회원교단, 단체를 위하여’-최순영 목사(대신 총회장)가 각각 특별기도를 드리고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가 신년인사를 전하며, 박종덕 사령관(NCKK 회장)의 축사와 김요셉 목사의 축도로 신년감사예배를 마쳤다.

2부 하례회는 사무총장 김춘규 장로의 사회로 각 교단 대표와 법인이자, 임원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교단 단체 총무 순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락케이크를 자르며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었다.

한편 한교연은 오는 1월 27일 오전 11시에 제3회 총회를 개최하고 제3대 대표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30 담임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153-8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02)3281-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합동보수부총회장 131-221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합동보수 서기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합동보수 회의록서기 429-81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양문교회/양문 어린이집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시무 송인섭 장로 합동보수 회계 400-160 인천시 중구 경동 177 ☎032)766-7654 0023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분지 상임이사 139-869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우리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조재호 목사 개혁총회 서기 477-805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631-3 ☎010)6266-1331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전지 구로 우성 A상가 202호 ☎02)869-0166 Fax 02)869-0167 이사장 011-287-0317



1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국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아름다운 동역자

말씀: 빌립보서 2장 23절 - 30절 찬송가 569장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 된 자요 쓸 것을 돕는 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곁에 있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위해 돕고 애쓰는 아름다운 동역의 삶이 우리의 가정 안에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목: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 3절 찬송가 284장
바울은 이단에 대해 깨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할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내적으로 변화 받은 자만이 참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목: 그리스도를 위한 삶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 - 8절 찬송가 310장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을 일삼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하던 세속적인 것들을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목: 오직 주의 은혜라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 찬송가 305장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고난에 참여하는 자

말씀: 빌립보서 3장 10-11절 찬송가 455장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체험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옛 삶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아름다운 성정을 이루는 가정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목: 꽃대를 향하여

말씀: 빌립보서 3장 12-16절 찬송가 350장
바울은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적 경주를 함에 있어서 최종 목표 지점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야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최선을 다해 달리는 가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목: 나를 본받으라

말씀: 빌립보서 3장 12-16절 찬송가 350장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 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 나온 생활과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믿음을 통해 나의 삶 또한 타인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목: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 찬송가 430장
바울은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된 유유디아와 순두게의 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다시 하나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 자신은 투옥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뻐하라' 고 거듭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염려하지 마시다.

말씀: 빌립보서 4장 5-7절 찬송가 382장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며 의무이며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과 간구함에 있어 감사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하게 될 때 우리가운데 염려가 떠나갑니다. 불평, 원망, 낙심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목: 행하라

말씀: 빌립보서 4장 8-9절 찬송가 540장
바울은 8절에서 8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만이 평강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자족하는 마음

말씀: 빌립보서 4장 11-13절 찬송가 320장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자족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만족하는 법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함께 참여하였으니

말씀: 빌립보서 4장 14-16절 찬송가 191장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자신의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교인들에게 감사하며 경의를 포함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무엇이든지 함께 참여하며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마음의 선물

말씀: 빌립보서 4장 17-22절 찬송가 182장
바울에게 있어서 일차적인 관심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 속에 나타난 영적 열매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선물을 마련한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 빌립보서 4장 23절 찬송가 91장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즉,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속에 충만하다면 하루하루가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칼럼

안정과 번영으로

시장의 영세 노점 상인들을 보면 계절 따라 판매상품이 달라진다. 시기에 맞추어 출하되는 물품을 구입해 시장골목에 앉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촌경제는 도시경제와는 차이가 많음을 느낀다. 농촌경제 살리기 정책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것 같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로인해 세계경제 G20국가로서 앞서가는 경제국으로 등장되었다. 이제는 농촌 경제와 저변층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점에 있다.

어려운 삶속에 젊은 층은 직장을 얻지 못해 방황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는 혼돈과 혼란의 한해를 보낸 것 같다. 이석기 사건 파동과 철도노조 파업시위 등으로 마스크를 접하는 국민들은 혼란스런 마음이었다.

국내에 산재해 있는 좌파조직들은 마치 공산회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날뛰고 있었으며, 국정원 해체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여파구니 없는 시위 등으로 국가 혼란을 야기 시켰었다.

의정을 다루는 국회는 국민의 생활상 전체를 파악하여 소외계층과 저변층의 안정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오늘의 국회 모습은 자당의 정책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의 철도노조 파업에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각부 장관들은 마스크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소신 있는 안정 정책에 대해 말 한마디 없는 상태였다. 아무도 책임 의식이 없는 정부각료로 국민들에게 비쳐진 것이다.

철도노조파업 시위를 보면서 정부의 공권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을 불모로 잡고 철도 파업 시위를 것을 방관 하였음을 정부나 국회 모두가 대국민 사과함이 마땅한 것이다. 수 많은 경찰병력들이 방패만 들고 서있는 모습은 오히려 시위를 부추기는 일이었다. 경찰이 왜 강력한 진압을 못하는 지 안타까움뿐이었다.

강력한 진압을 하지 못하는 공권력이라면 차라리 시위 진압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엇이 두려워 강력한 해산을 시키지 못하였는지 정부의 공권력에 실망치 않을 수 없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조건 반대하며 시위한다는 것은 자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국내에 산재해 있는 좌파조직들의 소행인 것이다. 사회 혼란을 방관한 한다면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은 기대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시위를 물론 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한 공산주의자 김정일은 남미한의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국내에 산재해 있는 좌파조직을 이용하여 갖은 중상모략으로 시위를 부추기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에 앞장서서 삭발을 하며 붉은 머리띠를 띠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완전한 반국가 행위로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지도자와 국회의원들은 임기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의지를 가지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시위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하여 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의 초석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국정원과 경찰에 강력한 힘을 실어 주어 반국가 조직과 좌익요원을 철저히 색출검거 하여 안정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기업의 노조 활동 시위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임을 철도파업 사태를 보면서 확인 하였다. 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도 철도파업시위가 일부 국회 여·야의 원들의 합의로 진정된다는 것은 정부의 관계부처가 힘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는 의정기관이다. 얼굴내기 정책 협의는 법치 국가로서 부끄러움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철저한 국가관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촌경제를 비롯한 저변층 살리기와 기업과 노조가 힘을 합쳐서 기업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겠다. 또한 완전한 국방으로 다시는 이땅에 공산주의가 넘보지 못하는 강국이 되어 안정과 번영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정교회
본지 상임이사

謹賀新年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웅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곡리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사랑, 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 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목/장기 요양원 정동진 행복원

예/배/시/간/만/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설신학교수
-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 0692 / H.P:010-6409-0091
E-mail:crnh1091@hanmail.net

담임 광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오전: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오후: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임동보수 총무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404-200 인천시 서구 공촌동 314 경남@ 103-506호
☎070)7501-2584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03-811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2014년 포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담임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예,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요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충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실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주일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 · 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스타일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다니엘서 6장 강해 (14)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섬기는 절대 불변의 신앙

단 6장「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다니엘이 메데 파사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된다. 다리오왕 다음의 실질적 통치권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잡고 쓰신 것이다. 다니엘은 오직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두어져 있다. 하나님의 뜻과 중심으로 살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영혼 살리는 영적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일처리에든 똑같이 흠, 점 없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실책이 없다. 뇌물이나 사욕과는 거리가 멀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 속한 바벨론, 메데 파사나라에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가 가듯한 본토인 정적들은 다니엘의 틈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간계를 쓴다. 마귀의 법을 세운 것이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집어넣게 한다.' 이것이 마귀 법이다. 이들이 볼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불변이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마귀의 법을 세우면 결국 울무에 잡힐 것이다. 이것이다. 사자 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악한 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인정합니다. 마귀도 알고 인정한다. 순교신앙에 서면 하나님이 알고 확정된 자로 인정하지만 순교신앙에 선 것을 마귀도 잘 안다. 마귀도 건드려 봐야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건드리지 못한다. 노 터치(No touch)한다.

다니엘은 순교신앙을 초월한 것이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다니엘의 생명이다.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인정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순교를 기쁘게 여기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니엘은 순교신앙보다 더 위에 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나온다. 이미 순교신앙에 서있고 말씀을 증거하여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살려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 일을 하는 자의 신앙 위치와 같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에 세워지려면 3장을 거쳐서 6장에 올라오는 것이다. 제 7장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침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다니엘은 '144천의 종'의 신앙을 계시한다.

1. 3장과의 진전된 계시가 6장이다.

단 3장: 순교신앙에 선 세 친구는 오직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에 와서 순교신앙으로 세워진 것이다. 다니엘 2장에서 순교신앙으로 성장된 것이다.

단 6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신앙이다. 순교신앙 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다(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4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신앙이다.)

2.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간계를 펴다. 왜? 다니엘 신앙을 그 악인들도 인정 보증하니까. 다니엘은 죽어도 마귀 법인 우상숭배 안하고 하나님께 기도 하려고 불참한다. 미리 확신하는 악인들이다(환란 때도 동일함).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법에 절대불변 신앙임을 알고 대적자들이 우상숭배의 법을 만들어 그 울무에 걸리게 한다.

3.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명 알고도 참모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 신앙이다. 왜? ①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이 악한 간계가 허락된 것이니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평강이 있다. 다니엘은 악한 자를 통해 울무로 법을 만들어서 왕의 어인을 찍게 한 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 진 일임을 알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니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으니 곧 평강이요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다니엘이다.

②다니엘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 역사 알아차렸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깨닫는 영적 해안이 있다. 그런 고로 수석 총리가 됐을 때에는 감사했다는 말씀이 없는데 오히려 사자 굴에 던지는 처형이 내린 후 기도할 때는 감사가 넘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에서도 이를 알 수가 있다.

③이는 다니엘에게만이 아닌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왕이 다니엘 6장 24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대적했던 악인들을 다 멸한 후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끝까지 말씀과 같이 왕이 조서를 내려 온 천하 만민들이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연료부흥회 부총재

믿어주고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학생부 부장직을 맡아 봉사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집사입니다. 제게는 올해 고3이 된 딸이 있는데 올해 들어 잘 다니던 교회에도 가지 않으려 하고 말대꾸를 하는 등 언행이 아주 불순해져서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묻기라도 하면 "엄마가 뭘 알아요? 그냥 내버려둬요"라고 할 때는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듯하여 매우 서운합니다. 대학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 탓일까요? 아니면 부모에 대한 반발일까요? 교회도 가지 않고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지 저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집사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우시죠? 많은 고통과 희생과 사랑과 인내가 따르는 일입니다. 때로는 자녀

들이 그것을 몰라 줄 때 부모로서 섬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청소년기를 가리켜 '이유 없는 반항기'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외적인 갈등 속에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 부모가 같은 위치에서 대립을 해서 한차원 높은 단계에서 너그러움을 가지고 자녀를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성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어 한 인격체로서의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를 심리학적으로는 '정신적인 유아기'라고 부릅니다. 부모와는 세대차이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고 재미가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신이 직접 보고 느

끼고 판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때는 부모와 주위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기 보다 이상적인 것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부모들은 바로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안됩니다. 이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할 거라고 짐작하고 내뱉는 상투적인 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모님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사랑입니다. 마음 문을 닫고 있는 때들에게 억지로 다가가기보다는 때로는 한발 물러서서 묵묵히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며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통할 테니까

요, 꾸준히 인내하며 기다리다보면 따남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8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따남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힘들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오랫동안 믿어주며 기다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나 잘못을 풀어주는 사랑 앞에서 따남의 불순함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이러한 헌신은 힘든 청소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박경혜 박사
영성신학원상담학교수

황성주 박사의 "3박자 건강" (50)

“인체는 질병에 대해 자연치유력을 지니고 있다”

“병은 자연이 고쳐주고 돈은 의사가 받아간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다. 의과대학 3학년 때 일이다. 당시 명의로 이름을 날리던 한 교수가 강의 도중에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의사는 치료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진짜 치료는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에 의해서 되어 진다. 자기가 환자를 치료했다고 자만하는 건 스스로 훗날 의사가 고치는 것밖에 안 된다. 의사는 겸하한 자세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

당시 혈기왕성한 의학도들이 대의학자의 경험담에 감동되어 모두들 숙연한 표정으로 강의를 들었다. 의사는 선의의 조력자임

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논쟁중의 하나는 '증상을 질병으로 보느냐, 자연치유과정으로 보느냐'이다. 예를 들면 부패한 음식이나 이질적인 식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구토나 설사는 증상 자체만으로는 일종의 '병' 입에 틀림없다. 그러나 생체의 방어기전의 차원에서는 유독 물질이 장에 흡수되기 이전에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해야 하는 자연치유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할 때 지속되는 심한 설사가 아닌 경우 증상만을 없애기 위해 자제를 쓰는 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생수를 많이 마셔 장의 배출기능을 도와주고 한두 끼쯤 단식함으로써 장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대개의 정신노동자들이 식욕이 없을 땐 몸의 상태가 나쁜 것으로 여기고 고단백식을 억지로 하거나 보약을 찾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증상은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이 필요치 않다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부족한 운동량에 대한 계기판이기도 하다. 또 그동안 위장이 혹사되어 좀 쉬고 싶다는 표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모든 의료인은 우리 인체가 고도로 예민한 자체조절기능을 가진 살아있는 컴퓨터임을 전제로 하고 자연치유력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원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요법은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아울러 자신이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치료를 임하기 때문에 의사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환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 주므로 치료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킨 의사들의 지혜가 '암 환자는 반드시 또는 대개 죽는다'라고 믿고 치료하는 우리의 현실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평소 과학적인 건강관리로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체의 신비를 바로 알고 바르게 관리하자



황성주 박사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모성남 담임목사

예배안내		3,4층
주일	낮예배	
1회	오전 8:00	대예배실
2회	오전 10:00(노년회)	
3회	오전 11:30	
수요일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	금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청년대학부예배	오후 5:00
대예배		2층 새롬관실
주일	새벽예배	
1회	오전 5:00	2층 새롬관실
2회	오전 9:30	
3회	오전 11:30	
유초등부	1회	오전 9:00 3,4층 대예배실
2회	오전 9:30	2층 영산강을
3회	오전 11:00	2층 영산강을
고등부	오전 11:00	2층 영산강을
영아예배	오전 1:30	5층 두란노를
청년대학부예배	오후 2:00	2층 영산강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섬기는 분들

부목사	모정선 신강현 모정은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김태영
안용기 김진희	
협동목사	정경화(은퇴) 서기옥
전도사	추정희 진안순 윤영록
교육전도사	송선택
사무장	고재현 송승훈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광규 김학진
	김선호(은퇴)(유직)
은회장	노남규
합동장로	문환승
찬양대	지희 반 주
찬양대	문정인 장주영
찬양대	이혜원 박애숙
찬양대	송선택 최은정
찬양대	임미주 정다솜
찬양대	김로리 기은실
찬양대	유민리 고 성
찬양대	이진원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 : (061)278-0693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충현교회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회의 총재)

사무장: 신오석, 정종국, 김홍령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4년

「말씀으로 이만하여 다음세대에 걸릴 축복 하물소서」

늘 노래하는 자는 무병장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병장수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갇힌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십시오(사9:11)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한 심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라.

찾아오시는 길
《도시행복》
1. 중앙 → 화정 85-1 교당동 → 송정전철역
850 교당동 → 행신역
706 교당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화정버스》
85 교당동 → 남부곡 800 내리동 → 신촌
9713 분당선 → 서울역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82 내리동 → 영동로 1900 분당선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담임 임찬미 목사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북된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 070-7443-7277

인천시온교회 “우리교회최고” CTS 공개방송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시온교회(담임 조영만 목사)에서 지난 12일(주일) 오후 2시부터 CTS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 “우리 교회 최고”라는 프로그램으로 약 1시30분간 진군제, 이평한 목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가 기도도로 시작된 “우리교회최고”의 공개방송은 화가에애하고 화끈한 가운데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성도들과 진행자들의 열기는 더해 갔다.

이날 첫 번째 순서로 시온교회 향유중보기도단 밀알중앙단의 “마라나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어 김삼남 안수집사, 윤경순 권사가 시온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조영만 목사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아울러 조영만 목사는 성도들의 영성 훈련과 목회철학에 대해서 말하기를 “4년 전 주님의 방문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서 조 목사는 1988년까지 환각제 대마초에 빠져들어 인생 밑바닥을 살았고 가솔을 해서 자살을 하려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의 뜻대로 살 아온 결과가 무엇이었나?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때 그는 통화자복을 한 후 하나님의 은사를 받



교, 예전의 그 스타일을 다 버렸다.

그리고 체육대학에 재수를 할 때 한번은 교수님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한 손에는 환각제, 다른 한 손에는 대마초를 들고 학생들 앞에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법인데 죽기 전에 너희들은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죽어야 한다면서 해보고 싶은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면 학생들이 줄줄이 따라와 고 그들이 대마초와 환각제에 빠지게 했는데, 이렇게 살았던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간증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훈련받고 결국은 목회를 하게 되었고, 4년 전에 하나님이 다

시 저를 찾아 주셔서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쉬고, 말씀도 보지 않고 외적인 사역에만 열심을 쏟았는데,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첫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말씀 목상과 기도에 전주하면서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초등학교생 정다빈의 바아울린 연주와 한승희 선교사의 찬양이 있는 후 김영배 집사, 마환현 집사의 간증에 이어 안명순 집사는 우리 목사님은 한 밤 중에 등대불과 같으며 자랑하고, 장미는 편사는 우리 사모님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자랑했다. 장현호 안수집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상민 안수집사는 시온교회는 주님께 신 곳을 가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출입문이라고 자랑했다.

또한 헌신하는 사역가 이명옥 집사의 간증에서 시온교회에 등록하여 조영만 목사의 말씀과 기도로서 새 삶을 갖게 되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 가운데 막을 내렸다.



(사) 한기협, 2014 신년하례회 연합예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이하 한기협)는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회연합회의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 등 3개 단체가 연합하여 2014년 1월 13일 11시 여전도회관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가임교단의 총회장, 총무와 임원 대표들이 모여 신년하례회 예배를 드리고 새해에도 더욱 헌신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의 기도와, 예정21c성령총회 총회장 강매환 목사가 성경 마태복음 7:7-12절을 봉독하고, 개혁중앙단의 찬양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회 연합회의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가 “요청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신앙의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새해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므로 베풀기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한 기쁨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직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인생의 근본적인 세계관에 대하여 희망찬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많은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얻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인생의 행복과 꿈과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 되심을 증거했다.

또한 박형렬 목사는 오직 단체나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가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축복받아 지랑스러운 기쁨의 새해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예장영성총회 총회장 김정환 목사가 기도하고, 3개 단체인 사단법인 한기협, 세교연, 한기협 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신년하례회 예배를 성대하게 마쳤다.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회 연합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가 신년사를 낭독한 후, 3개 단체 영성총회 총회장 김정환 목사가 기도하고, 3개 단체인 사단법인 한기협, 세교연, 한기협 발전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신년하례회 예배를 성대하게 마쳤다.

경서교회 홍성익 목사 위임감사예배 드려

홍성익 목사는 제2대 목사로 아버지 홍재철 목사의 뒤를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서교회는 12월 28일(토) 오후 2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본당 3층 예루살렘성전에서 홍성익 목사는 31년 동안 경서교회를 개척하여 대형교회로 우뚝 세운 부친 홍재철 목사의 뒤를 이어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 위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위임감사예배는 위임국장 김길수 목사(노회장)의 인도로 진행되고 노회서기 김성환 목사가 기도를, 서남시찰장 김광규 목사의 성경봉독(갈 1:1~3절)과 경서교회 연합찬양대(지휘:한미경 권사)의 찬양이 있는 후 증경노회장 이호연 목사는 “바울이 사도된 방법”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설교했다. 이어 2부 위임식에서 위임국장 김길수 목사는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홍성익 목사와 교인들을 향해 각각 서약을 하고, 홍성익 목사가 경서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표한 후 증경노회장 김한중 목사는 위임 받은 홍성익 목사와 본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했다. 이어서 오문택 목사(증경노회장)

가 격려사를, 이기동 목사(노회부서기), 이승문 목사(명지전문대학교 교목실장)의 축사와 경서교회 청년국, 여성4인조 CCM그룹, 프뉴마의 축하, 배인관 장로(수석장로)가 선물증정, 홍성익 목사의 답사, 조재현 장로의 인사 및 광고, 본 교회 홍재철 원로목사의 축도순으로 마쳤다.

경서교회 담임 홍성익 목사는 어린 시절 내가 커서 무엇일 났을 것이냐? 는 아버지(홍재철 원로목사)의 질문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성장하여 명지대와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가 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본 교회의 제2대 목사로 위임을 받았다. 그는 위임소감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담임 홍성익 목사는 명지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M.Div),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졸(S.T.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재종(D.Min), 명지대학교 열린 예배팀 예시랑 1.2기 회장 역임, 명지대학교 기독 학생 연합 회장 역임, 시집 ‘실장 속에 박힌 사랑 이야기’ 성경교재 Rooting Bible Study 등 영력과 실력을 두루 겸비한 목사로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2014 謹賀新年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경남신학원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2014 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말처럼 열심히 뛰는

해가 되어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총회장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이재식 목사
풍성교회



회의록부서기 허봉도 목사
서광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2014년이 되시길 바라며
총회장 이규필 목사 외 임원일동 세배 올립니다.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이 규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02)496-0191, 496-0181(FAX)

탕자의 삶,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가 되어

10대 때의 방황, 알코올 중독과 이혼, 가출, 자살 시도



김지혜 목사,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기적... 하나님의 손

인생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하나님의 손이 없었더라면 알코올 중독과 밤배, 가출과 이혼, 자살 시도 등 10대의 방황으로 김지혜란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김지혜 목사이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원을 개원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김지혜 목사(송파방주기도원 원장)가 있다.

김지혜 목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을 때, 그는 이런 아픔과 우여곡절도 많았다.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가정에서 폭언과 폭행으로 상처받은 삶을 급기야 가출을 선택하고 그때부터 의지할 곳 없는 몸은 술과 담배, 환각제로 망가져 가는 인생으로 전락했다. 20대 초반에 애들까지 있는 백수전달을 남편으로 맞이했다. 하지만 그는 노름과 폭력, 술주정과 거짓말, 바람을 피우는 등... 더 이상 가망은 없다. 결국 이혼을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다시 방황의 길로 들어서야 했다. 날마다 술로 인생은 망가져 갔고, 알코올 중독으로 손 떨림이 심하다. 며칠씩 잠을 잘 수 없이 술만 찾았다. 그는 어느 날 귀신이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술, 담배를 끊고 사람답게 살게 좀 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온다. “주님 제 안에 거하시고 저는 주님 안에 평안함을 얻겠나이다.”하고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며 흐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다음날 모 교회 수양관에서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았고 초행 같이지만 기도원을 찾아 갔다. 첫 날 예배 시간 찬양이 시작되자 그는 뒤로 넘어졌고, 집회를 통해서 술과 담배를 끊었다.

하나님은 심판 때 일어날 일들과 천국을 보여 주셨다.

그 후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 장면과 천국을 보여 주셨다. 그는 기도가운데 카메라를 줌으로 당기듯이 자신의 영이 빨리 들어가는 느낌이었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아주 커다란 기둥이 여러 개 있었고 그 기둥은 순 황금이었다. 그는 그 기둥 밑에서 이렇게 외쳤다. 와 순 황금이네, 이 큰 기둥이 성전 안에 있으면 이 성전은 얼마나 크다는 말인가? 그 기둥 앞에 선 그는 점점 작아져더니 개미처럼 작아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카메라를 줌인 하듯이 더 앞으로 빨리 들어가는데 정면 앞에 아주 환한 빛이 있었고, 너무도 환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임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하나님 오른쪽으로는 황금 보좌가 보였고, 사람의 형태가 있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음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22: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는 성가대원들이 있

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흰 세마포를 입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세마포 옷이 자신의 옷이 아닌 어른 옷처럼 커서 질질 끌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갈 때 그 세마포는 내 것처럼 잘 맛을 졸로 믿는다고 했다.

김지혜 목사는 그때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후 수양관에서 한 달 내내 예배 때마다 얼마나 울었던지 별명이 울보가 되었다. 그때부터 인생 삶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영안이 열리면서 환상 중에 천사와 귀신이 구별되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가슴에 도장 같은 것을 크게 박아 주셨는데 크고 동그란 도장 같고 마패처럼 노랑 금색인데 장기 금식 중에 있는 교역자에게 묻자 “민음의 흉패”라고 한다.

기도 굿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회개를 시키시는데 술 마신 것, 담배 피운 것, 음란한 죄, 도적질,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주셨다.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어느 날 기도 중 기도원에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후 3시간씩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야 내가 너를 찾았구나” 하셨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김지혜 목사는 말한다. 그동안 주 안에서 체험한 일들이 많으면서 그 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쓴 마귀 음성도 들었고,

신유은사와 축귀 능력도 체험했다.

김 목사의 모교회의 목사는 지금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고 묵묵 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김 목사 본인도 어머니 권사와 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 김 목사는 수 많은 사람들과 치유하며 귀신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날 병원 전도를 갔는데 남자 병실이었다. 여름이라 더워서 옷들을 벗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어느 여 집사가 남자 환자를 전도하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어깨와 팔 다리를 주물러 주고 있다. 이럴 때는 서로에게 음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무장을 해야 한다. 결국 그 환자는 음란 마귀에게 속고 있었다. 이런 일처럼 일들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혼신을 다하는 김지혜 목사이다.

그는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이 나약하기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끄러운 일들로 코너에 몰리면서 개척을 결심하게 되었고, 하지만 고난의 연속이었다. 조용히 혼자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고독하면서도 평화가 있었다. 마음이 차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필요한 성물과 기구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셨다. 당시 기도원은 광주광역시 쌍문동에 있었다. ‘마하나임 기도원’이었다. 기도만 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모이게 해달라는 기도만 나왔다. 그 결과 하나님은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신학교를 가라하셔서 광주 총회신학교에서 강하게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은 “총회신학교를 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기도가운데 광주 총회신학교를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배우고 훈련을 강하게 받았다.

그 후 신학생 전도사들을 훈련시킬 때면 “모두를 일대일로 만나라,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라”. 전도용품은 그때마다 있는 것으로 한다. 때론 먹던 쌀로 떡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가 하면 속을 뜯어서 전을 부쳐서 나누어주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도록 한다. 또한 기도원에서 치유 받은 분들의 간증 책을 손바닥만 하게 만들어서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산기도 훈련으로 단련하신다. 주님은 산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신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

〈다음호에 계속〉

중독 손실 년 100조 넘어

“영혼을 쪼먹는 범죄”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발벗고 나선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가 주최하는 제183회 성시월요조찬기도회에서 특강을 통해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소개하고 예방과 치료에 한국 교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13일 오전 6시 30분 순복음강남교회 선교비전센터에서 드린 특강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정모 장로의 사회로 전용태 장로가 기도를 인도했고, 최명우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최명우 목사는 설교에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격려하고, 시편 116편 1절~8절 말씀을 본 문으로 기도와 신앙은 기적의 신앙과 기쁨의 신앙을 역설했다.

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면 기적은 물론, 환경을 변화시켜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의 역사가 시작된다.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라며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의 포도주가 여러분의 삶속에서 풍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강에 나선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계기는 2012년 프로포폴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년에 70만이나 맞는 환자도 있다.”며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소개했다. 신 의원은 “다른 나라는 중독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각 부처마다 따로 관리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가급적이면 한 곳에 모아서 중독 관리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100조가 넘는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내영이를 치료한 신 의원은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은 알콜성 치매라야 알콜로 뇌가 녹고,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진다. 도박중독도 자살로 이어진다. 인터넷 게임도 비만과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며 중독의 심각성을 소개했다.

신 의원은 “중독은 영혼을 쪼먹는



범죄”라며 “중독은 사람을 비참하게 동물적으로 만든다. 개인중독에 빠진 아이가 있으면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이혼은 시간문제”라고 중독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성공신화가 강한 나라”라고 밝힌 신 의원은 “돈 많이 벌자고 해서 사회가 저출산이 되고, 노령화되고 있다.”며 산업화의 폐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유아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소개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알콜, 마약, 도박, 인터넷게임 등은 흡연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109조나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300조인 것에 비하면 엄청 큰 비용이다.

신 의원은 중독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독장애 진단기준으로 내성, 금단, 조절의 어려움, 집착 증상”이라며 “여기에, 관계, 직업, 학습기능, 기회상실을 중독 장애 진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중독을 끊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환경을 바꿔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신 의원은 “중독에 가장 취약한 시기는 청소년기다. 충동을 조절하는 뇌가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독환자의 7퍼센트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두 아들을 둔 엄마로서 컴퓨터게임을 조절하는 일이 힘들었다.”고 소개하고 “부모들이 기계를 접할 때부터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지침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謹賀新年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요 영사	주요 영사	주요 영사	주요 영사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일	오후 3:00	이전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원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새배인어 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배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광요 기도회	광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영복샘전인치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업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영양과학연구소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영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췌장에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약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루머티즘관절 평상생활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예배 시간 안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 새벽 기도회 오전 5:00
-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현동)
☎ 053-752-8238 010-8537-8291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

- 예장(백성) 인천노회 소속
- 동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예수능력치유센터 대표(인천)부흥사원수원장
- 지저스타임즈부흥사원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원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구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부흥 사관학교

대표



광영민 목사

교장(서울)



김명옥 목사

교장(인천)



김혜자 목사

사무국장



윤항석 목사

교수



김성립 목사

교수



김선우 목사



김명중 목사



이항중 목사



광영민 목사

■ 광영민 목사 약력

- 동불교회 담임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연수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원의회 5대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원의회 사무국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 지저스타임즈 본사 사무국장

http://kiea.onmam.com

교재제공 및 회비 없음

-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 장소 : 충만교회 · 총회신학연구원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8-7 2층
- ☞ 문의 : (대표)010-2080-0651, (사무국장)010-2008-5072

총회신학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문의:학장 김해자 목사 010-5517-7223)

한보협 2014년 신년하례예배 및 WCC경과보고대회

한보협, 2014 신년하례 및 WCC경과보고대회

WCC는 666 루시퍼 짐승을 경배하는 666 퍼포먼스 행위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이하-한보협)는 1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 연합회관 2층 루이스홀에서 한보협 교계지도자 2014년도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WCC대책위원회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인도로 1부 신년하례예배가 진행되어 김 암 목사(법인이사)의 기도, 오승겸 목사(기독교한국성경회 총무)가 성경 봉독(눅 12:42~53)하고, 복음가수 박장미 목사의 특송,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의근 목사(기독교대한자 유감리회 감독), 한상용 목사(예장, 호헌총회 총회장)가 국가 안전과 통일을 위하여, 한보협 발전(총회, 단체)을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에 나섰으며, 박장미 목사의 찬양과 박금동 목사(예장, 개혁연합회 총회장)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아울러 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전임 교단장, 박영금 감독, 지왕철 목사, 한홍교 목사에게 공로패를, 문재선 목사에게 감사패를, 이의근 목사, 이만나 목사, 김양호 목사, 민정식 목사 등에게 교단장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날 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새해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201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새해인사를 나누었다. WCC와의 전쟁으로 수고했던 교단장들을 격려하고 새해에도 본 협의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이어 WCC가 한국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2014년 한 해도 본 협의회가 성장하는데 교단영입을 힘쓰겠다는 다짐과 한보협에 소속한 40개 교단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역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교단들, 문제가 있는 교단들을 위하여 협회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고 모든 교단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보수교단협의회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다했다는 자랑스런 함께 지난 한 해 WCC와의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설명하고, 계속해서 한보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WCC 세계대회는 실패한 대회였는데, 일부 교계 지지자들은 WCC가

기독교 세계올림픽대회였고, 성공한 대회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역설했다.

올림픽은 IOC위원회가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스포츠 대회이며, 올림픽경기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제우스신을 신봉하는 제전경기의 하나로, 종교, 예술, 순사훈련 등이 삼위일체를 이룬 헬레니즘 문화의 화려하고도 찬란한 결정체 인데, 여러 잡신을 섬기던 각 도시국가의 시민들은 올림픽대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 올림픽파로 몰려들어 신전에 참배하며 제례를 지내던 행위가 올림픽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번 부산 벡스코에서 행한 WCC 제10차 부산총회 조직위는 기독교 올림픽임을 홍보하고 행사를 거행했었지만 그들의 예배의 행위는 철저하게 위장된 사탄숭배의 장이었고, 성경과 촛불을 든 청년 3명이 북과 징소리 장단에 맞추어 제단위에 성경과 촛불을 올려놓고 서 있는데 청년들이 입은 옷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아래 666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666 루시퍼 짐승을 경배하는 행위이며 WCC 666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WCC 부산총회는 시작부터가 빛나간 귀신숭배였다. 그



들은 벡스코 안에 당상(성황당)나 무를 제작하여 세웠는데, 이는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졌던 성황당과 같고, 그 나무를 그들은 기도나무라고 소개했다. 나뭇가지에는 소원을 적은 쪽지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또 풍물패의 마당놀이 공연을 크리스천의 기도 행위로 묘사했는데, 그들의 주장의 의하면 (국의 일종인)설장구는 살림신학이며, 살림은 기독교 방식의 삶을 말해준다면 소개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바로 알아야 한다. 설장구는 [매구(埋鬼) / 잡귀를 쫓아내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벉사(呪) 축원(祝願)] 국의 하나이며, 설장구는 원래 판 곳에서 장구재비들이 단체로 간단하게 같은 가락을 치거나, 원진을 틀거나, 혹은 삼진삼퇴 등의 간단한 동작을 하면서 귀신을 퇴치하던 국인데, 그러나 저들은 이 국판이 크리스천들의 기도이며, 크리스천들의

힐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늘어놓고 있으니 한국교회는 이를 깨달아야 한다.

또한 WCC 부산총회에서 동성애자들(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활동했고, 심지어는 이 모임에 참가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해외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인(국의 일종인)설장구는 살림신학이며, 살림은 기독교 방식의 삶을 말해준다면 소개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통과가 좌절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을 예로 들며, 한국이 이제는 동성애자 권리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심지어 울라프 WCC 총무는 동성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애매모호한 말을 했는데 결국 ‘동성에 언급 없이 WCC 일치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코흐 로마교황청 평의회 의장이 조계종 진제 종장을 찾아가 WCC 대회 때 템플스테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할 정도로 저들의 종교다원주의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실질적인 종교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WCC 평화통일 성명서에서 저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미군사동맹 무력화를 내세우는 등 지금까지 북한괴뢰가 즐기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또한 저들은 1953년의 정전협정을 종식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곧 미군철수를 의미하고 있으며, 천안함·연평도 등 온갖 도발·공갈·협박에 대한 비판도 없었다. 핵무기·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에 대한 촉구도 없었고, 북한의 변화에 대한 요구 없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만 했다. 도리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김정은 정권의 악행에 대해 완벽에 가까운 면죄부만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97년~2007년 사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69억5천 만 달러를 북한에 퍼 주었다. 이는 북한 주민이 식량을 사면 23년을 먹을 돈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 3분의 1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북한괴뢰는 그 돈으로 핵무기만 드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받아먹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하는 등 지금도 전쟁위협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짐승들이다.

그러면서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는 진리를 사수한다는 보수 측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계 언론과 방송들이 WCC를 지지 및 옹호하거나 협력을 하였는데도 그들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계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이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상하는 것조차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2부 순서로 한홍교 목사(WCC대책위원회 공동회장)의 사회로 “WCC대책위원회 활동보고대회가 열리고, 송춘길 목사(WCC대책위원회 상임회장)의 경과 및 결과보고가 있었다.

상임회장 송춘길 목사는 제10차 WCC 총회가 2009년 8월부터 동 총회가 끝나는 2013년 11월 8일까지 한보협은 한 순간도 시선을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간

동안 WCC에 관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처해 왔고, 집요한 노력의 결과는 제10차 WCC 부산총회를 실패로 끝을 내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잠자던 한국교회가 깨어나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비록 힘든 싸움이었지만 한보협의 그러한 노력과 열정으로 인하여 인본주의 WCC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지켜지게 되었고, 종교다원주의 WCC로부터 십자가의 도가 지켜지게 되었으며, 종교혼합주의 WCC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게 되었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했다.

지왕철 목사(WCC대책위원회 회장)는 대회사에서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든 간에 마음이 항상 든든했고, WCC 반대운동을 쉬지 않고 열심히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동력이 되어준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했다.

회장 지 목사는 수년 전부터 한보협은 서로 협력 동조하여 WCC 반대운동을 최초로 주도해 왔으며, 그러던 중 한기총이 2013년 1월 13일 갑자기 돌변해 WCC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에 한보협은 즉시 1월 16일~18일까지 일예 두 허를 가진 한기총은 회개하라고 외쳤고, 또한 한보협은 한기총을 향해 “아우가 죽어서 장사지내러 왔다”며 개탄했다.

그때 공동회장 한홍교 목사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몸시도 추웠던 엄동설한 한목사는 사모의 부족을 받으면서 생명을 걸고 외쳤다. 이 일로 한보협은 많은 힘이 되어 용기를 갖고 이 운동을 하는데 큰 결실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한보협은 이 운동이 작은 불씨가 되어 WCC를 국가 재정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계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이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상하는 것조차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한보협의 여건이 WCC와 견줄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WCC와 담판이 싸워 이겼으며,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인사했다. 이어 민정식 목사(한보협 사무총장)의 성명서 낭독 후 이상호 목사(대전지회)의 축도로 마쳤다.



2014년 교사의 영성을 깨우는

사단의 문화전략과 교회학교부흥세미나

무료 초청

조정환 목사
교회학교살리기운동본부 대표
수원예브른교회 담임
H.P. 010-6211-9125

주영광 목사
이미지 성경 교육원 대표
교회학교살리기운동본부원장
H.P. 010-9142-3859

허상범 교수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민법교수
교회학교, 청소년 집회강사

세미나 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 ◆ 집회를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연락주시십시오.

1차 1월 21일(화) **금천양문교회** 이훈구 목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492-53
T. 02-805-2010-1 www.kypp.or.kr

4차 1월 25일(토) **서울영천교회** 이용호 목사
서울시 종로구 무학동 46-1728
T. 02-736-6528, 6748 www.wabora.or.kr

2차 1월 23일(목) **미아소망교회** 장근태 목사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32-2
T. 02-945-9317

5차 1월 27일(월) **거여중앙교회** 박영순 목사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06-1
T. 02-400-4255 5호선 마천역 www.w11004.com

3차 1월 24일(금) **사랑교회** 최성환 목사
인천시 남동구 만수 1동 974-18
T. 466-7103, 070-8226-1038 / 010-2252-9210

6차 1월 28일(화) **수원헤브론교회** 조정환 목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78-22
T. 031-226-9937 1호선세류역 www.hebron.com

대상 목회자, 부교역자, 사모, 교사, 직분자, 학부모든

등록 회비무료, 식사제공 (교재비별도: 1만원)

접수 및 문의 010-6334-9278 (정경옥전도사) 문자신청

주최 한국교회학교살리기운동본부 <http://cafe.daum.net/kcsrmc>

후원 이미지성경교육원

다음세대를 위한 부흥컨퍼런스
2. 17(월)~18(화) 저녁 6:20~10:00
경기중앙교회 의왕시. www.i91.org

국정원법 ‘재의요구’는 대통령 기본 책무

국회는 지난 해 12월 31일 민주당이 예산안을 인질로 국가중안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의 조직기구 및 예산, 대외활동을 전폭 제약하는 이른바 ‘국정원개혁법안’을 여야합의라는 미명하에 국회를 통과, 정부로 이송, 공포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국정원 개혁법은 SNS를 이용한 정치활동처벌을 명시하고 국가기관과 정당 및 언론사 등 상시출입과 파견을 금지한 ‘민간대상정보활동’에 제약을 가했다는 것만, 군대보다 더 엄격해야 할 상명하복체제와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근본부터 흔들며 놓고 국정원 세입세출예산 및 타 기관에 편성예산의 세목까지 국회정보위에서 낱알이 심사 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사실 흥신소만도 못하게 짓어겨 뒀다.

국가정보의 공간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켜내는 애국적 헌신성, 직속상사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복명보고는 물론 업무협조의조차 허용치 않는 고도의 비밀성, 1~2일이 아니라 몇 십 년이 걸려도 기본임무를 완수하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생명이며 비밀정보요원의 제1의 책무는 조직비밀 및 업무비밀 유지 및 수호이다.

이런 특성이 훼손 또는 배제 된다면 국정도, 시한도, 영역도, 피아 구분도 없는 정보전선에서 목숨바쳐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지켜낼 기관도 조직도 요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특성을 파괴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떻게

예전대, 대한민국 국정원 비밀정보 활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개 일반군 전투정찰대 소위가 애왕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속상관의 명령이 산에서 내려 갈 수 없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필리핀 루방성 정글에서 만 29년 4개월 간 ‘나 홀로 전쟁’을 한 구 일본 육군 소위 오노다히로(小野田寛郎)이야기(1974.2.20)를 귀동냥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이 따위 망국적 입법은 엄두도 못 났을 것이다.

대륙 기막힌 노릇은 지난 반세기 동안 김일성에서 김정에는 이르기가 지 북괴대남공작은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에 집중 되었으며, 국내에 침투 암약 해 온 노동당 남파간첩 및



지하당은 물론 이들과 끊임없이 내통 동조해 온 중북세력에게는 국가보안법폐지의 환경과 여건조성의 전제요건으로 국정원폐지투쟁을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었다.

이런 정황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에 당(열인우리.민주)의 정체성이 걸려

(仁)이라고 한 공자의 평(論語 憲問)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임진왜란 때 백책간두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승병을 이끌고 최대의 계율인 불살계(不殺戒)를 범해가면서 의병활동을 한 사명당과 서산대사 역시 대의를 위해 소절을 굽힌 교훈적 사례이다.

이제 대통령은 북괴 전범집단과 중북반역세력의 반세기에 걸친 대남폭력적화투쟁의 전위대로 전략한 막가파식 친노(親盧)전당의 책략과 술수에 놀아난 새누리당이 아합 개악(改惡)한 산물인 ‘국정원개혁법’을 국회로 환부, 재의(再議)토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역할을 국회 내에 침투하여 완강한 ‘혁명진지’를 구

국가보위 대국민 대통령취임선서가

국회시정연설시 언급내용 보다 우선

있다.(박병석)”,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노무현)”고 했던 발언과 함께 민주당 친노(親盧)가 국가정보원 죽이기에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렸던 이유를 십분 짐작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정원 죽이기에 동참한 새누리당 또한 반역의 공범이다.

이제 남아 있는 길은 대통령이 국회법 제53조에 의거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것 밖에 없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안을 만들어 오면 받아들일 것이다.”고 언명한 바가 있지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소관인 행정권을 전적으로 국회에 위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여야합의의 전제는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국가계속성유지라는 기본 책무의 한계를 전제로 한 합의였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합의를 뜻하는 아니다.

따라서 여야합의의 수용이라는 소절(小節)에 얽매어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가보위의 절대적 책임인 대의(大義)를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춘추전국시대 제 환공(濟桓公)을 도와 패업(?業)을 이루게 한 관중(管仲)의 고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의를 위해 소절을 굽힌 것도 인

축한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반역전과 자를 손아귀에 쥐어 준다 것은 대통령의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책무를 포기하는 중대한 ‘죄주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5.16 혁명으로 졸지에 강제해산을 당한 민주당 출신 광상훈 국회의장이 1961년 5월 28일 성명을 발표 한 대국민호소문의 일절을 소개 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의를 위해 소절을 굽히는 일대 용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立憲政治(입헌정치)를 썩어(腐敗)한 信條(신조)로 삼아 온 본인(本人)으로서 잠정적(暫定的)이나마 헌법 일부(憲法一部)가 파괴(破壞)된 것은 섭섭하지만 이런 非常手段(비상수단)이 아니고는 現下危機(현하위기)를 克服(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五一六軍事革命(오일육군사혁명)은 大義(대의)를 위하여 小節(소절)을 굽힌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군사혁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 앞에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유지를 선언한 것이 국정원설시 국회 합의를 언급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임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기본책무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국정원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라는 것이다.

지문 백승욱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경향교회 교단은 탈퇴, 신학교는 접수

개혁 외치다 제명당하고 쫓겨난

장로 집사 교인들, 새 교회 개척하고 예배 드려

예장(고려)총회(천 환 총회장) 직영 신학교였던 고려신학교가 총회를 탈퇴한 경향교회(석기현 목사)로 넘어갔다. 고려신학교 이사회는 12월 26일 ‘고려신학교는 교단을 탈퇴한 서울남노회 소속으로 한다’고 결의했다. 예장고려는 1월 2일 총회 소속 목회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새로운 신학교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신학교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응하지 않았던 고 주남선 목사와 한상동 목사가 1946년 부산에서 설립한 신학교다. 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주준태 총회장)의 직영 신학교로 발전하다 고신대학교가 새롭게 정부 인가를 받으면서 1970년 폐교됐다. 이후 예장고려가 예장고신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교단 설립을 주도한 석원태 목사와 경향교회가 고려신학교를 다시 설립했고, 지금까지 총회의 직영 신학교 역할을 해 왔다.

명색이 총회 직영 신학교였지만, 학교 설립과 운영은 경향교회가 도맡아 왔다. 학교 이사인 경향교회 김 아무개 장로는 “석원태 목사가 작년 8월 교장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오랜 세월 교장으로 고려신학교를 운영하고, 신학교 땅과 건물도 경향교회 수장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고려신학교 졸업생 대부분도 경향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작년 교단 설립자인 석원태 목사의 불륜 의혹이 불거지고 경향교회가 총회를 탈퇴하면서 고려신학교를 교회가 소속된 서울남노회에 둘 것인지, 총회에 그대로 둘 것인지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학교 이사회는 12월 2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려신학교는 교단을 탈퇴한 서울남노회 소속으로 한다’고 결의했다. 총 15명의 이사 중 경향교회 측 이사 9명이 찬성했다. 예장고려는 1월 2일 소속 목회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경향교회가 총회 직영 신학교를 불법으로 강탈했다고 했다. 이사회가 삼분의 이 이상의 결의가 아닌 과반수로 소속을 변경하고, 소집 전 안건 내용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불륜 의혹이 불거져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석원태 목사가 이사로 남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석



목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측 이사들이 석 목사의 위임장을 받아 한 표를 더했기 때문이다. 총회는 석 목사가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고려신학교를 빼앗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며, 경향교회가 고려신학교를 다시 교단에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는 불법적으로 학교를 빼앗겼지만, 총회의 본질인 반고소 정신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1974년 “신자 간의 고소가 가하다”고 결의한 예장고신에 반발해 분리된 이후, 반고소 사상은 예장고려의 설립 정신이 됐기 때문이다.

예장고려는 신학교를 서울에 다시 만들 계획이다. 비상 이사회를 조직해 학교를 설립할 장소와 교수진 확보, 신학생 모집 등 구체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석원태 목사의 1인 독재 체제하에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지냈던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향교회 측은 고려신학교 소속 변경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학교 이사인 김 아무개 장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안건은 이사회 내에서 논의할 통해 과반수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려신학교의 소속이 학교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속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 외치다 쫓겨난 교인들, 새 교회 개척

한편, 불륜 의혹을 받는 석원태 목사의 회개와 교회 개혁을 외치던 교인들은 1월 5일 경기도 양주에 새롭게 교회를 시작했다. 개척한 교회는 예장고려 소속으로, 명칭은 ‘경향교회’를 그대로 사용한다.

교회 개혁은 개혁과 장로들이 주도했다. 석원태 목사를 지키기 위해 교단을 탈퇴한 석기현 목사를 비판하다 제명된 17명의 장로와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온 5명의 장로들이 의기투합했다. 경향교회 전체 60명의 장로 중 삼분의 일 이상이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여겨 김 아무개 장로가 운영하는 회사 내 강당에 임시 처소를 마련했다.

이들은 새해 첫 예배가 잔치 분위기였다고 했다. 교회에서 힘들어했던 많은 교인이 반갑게 서로를 맞았기 때문이다. 장 아무개 장로는 “4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했다. 평소 친분이 없던 교인들도 많았는데, 이들 모두 ‘경향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왔다. 우리는 기쁘게 맞았고, 흠날분한 마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예배는 총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김수복 목사(소련선교회 총무)가 인도했다. 김 목사는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교인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할 수 없어 고통을 받았으며,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예배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다.



謹賀新年

www.inamhyu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비전 2020

1. 열정적 전도
2. 전인적 양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배
5. 기쁨의 봉사
6. 즐거운 교제
7. 능력의 선교

“2014년 들어”

“앞서가는 교회”

구원사역에 앞서는 교회
훈련사역에 앞서는 교회
문화사역에 앞서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 일 낮 예배	1부 2부	주일 오전 7시 30분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2중) 대예배(2중)
주 일 밤 예배	3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대예배(2중)
주 일 청년 예배(4부)	1 청년부 2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주일 오후 2시 30분	비전(1중) 1세아나눔(2중)
주 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3시	대예배(2중)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2중)
수 요 실 아 기도 회		오후 8시 30분	대예배(2중)
새 벽 기도 회	1부 2부	매일 오전 5시 매일 오전 6시	비전(1중) 비전(1중)

주일학교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부(3세이하)	유치부(4-7세)	1층 영아부실	1층 유치부실
1초등부	2초등부	2층 1초등부실	2층 2초등부실
중등부(중 1,2,3)	고등부(고 1,2,3)	2층 중등부실	2층 고등부실
태이시랑학교	이기학교	1층 유치부실	1층 유치부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 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길 목사
본지 상임이사 및 논설위원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52-102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슬초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 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

기독교대한 해녀의성회 수원할렐루아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주일예배안내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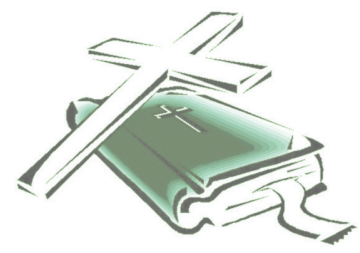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사단법인 한국보수교단협의회



담임 이범성 목사
대표회장



157-881 서울시 강서구 학곡1동 348-21 호용B/D 6층
☎02)2608-2190, Fax 02)2608-2191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담임목사 조강수

부 목 사 : 이주홍
협력선교사: 김종록, 서승학, 차명호, 권오성
장 로 : 임정수, 이정욱,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심방전도사: 원명숙
교육전도사: 이민규
전 도 사: 양승숙
성가 대장: 박남희
지 휘: 조은총, 왕소정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새 벽 예 배	오전 4: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감발달예배)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7:00	학 생 부 예 배	오후 4:30(토)
수 요 예 배	오후 8:00	청 년 부 예 배	오후 7:00(토)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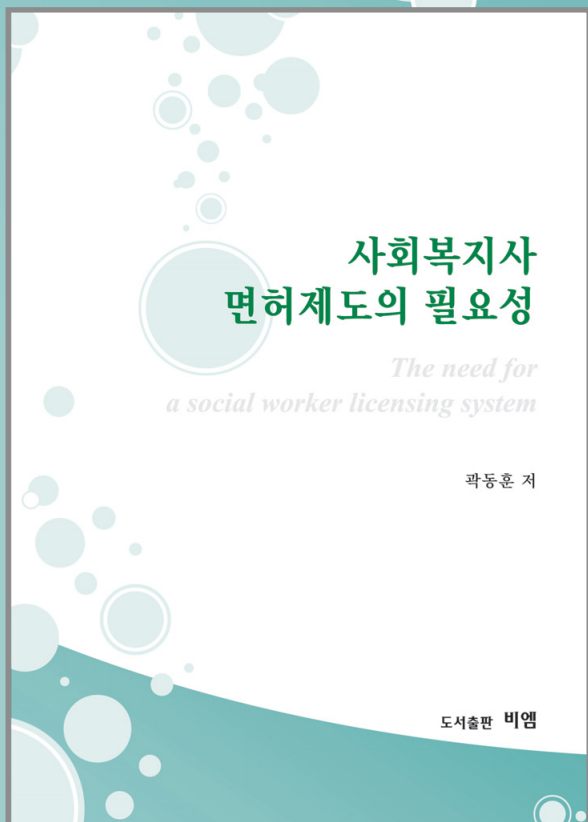
· 인천 서구 가좌동 4-24 Tel) 032-575-1654 · Fax)032-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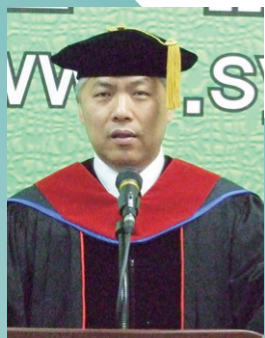
사회복지사 면허제도의 필요성



박광훈 박사



박광훈 저



박광훈 박사는 약 36년 전 주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한 후에 목회와 사회복지의 다양한 (알콜리즘, 중풍, 암, 치매 등)분야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문적이며, 세계적인 행정을 위하여 바쁜 가운데서도

신학사, 행정학사, 문학사, 목회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를 취득하였고, 명예신학 및 교육학박사와 2008년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에서 사회복지학박사(D.S.W)학위도 취득 하였다.

사회복지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위상과 전문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 하던 중에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본 논문을 통하여 Ph.D(사회복지전공)학위를 취득 하였다.

2007년 4월 국회복지포럼에서 표창을 받았고, 2008년 4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현재는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시설장으로 일하며, 각종 평생 교육원과 개신대학원대학교 평.교.원 한남대학교 평.교.원에서 강의중이며 각종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과 초청 강사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의 바른 정책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사)한국사회복지개인지원협회 대표이사로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 가 강 해 사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책 주문 방법입니다.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010-5355-2584 이메일: choyim7777@hanmail.net

예금주: 시온교회 신한은행 100-029-475990

책 값 한 권당 12,000원입니다. 신청 권수에 상관없이 입금 확인 후 무료로 배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보내기)에 3,4일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익금 전체는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 강해 하) 출간과 히브리어 강해, 신부단장에 필요한 일상을 모아 출간하는데 사용됩니다.

*전국 대형서점 어디에도 판매됩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 강해 상/저자 조영만목사/나침반출판사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네 기쁨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아 4:10)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아 1:8).

2년 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가 강해를 하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아가를 읽고 묵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덮어 놔습니다. 이걸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강해를 합니까?"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성령님께서 "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가 되는 길을 알려 주는 글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두 구절씩 강해를 해 나갔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72주 동안 아가 강해를 한 것입니다. 아가 강해를 통해, 곧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당당히 맞이하는 첫 열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자의 책 머리에 중에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 나려면

조영만 목사

인하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M.Div./MA
사회복지법인 아이아마음 이사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서부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전문위원
인천지하철공사 기독교신우회 지도목사
인천시청 기독교신우회 지도목사
JTNTV 방송 및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업의회 실무총무
인천시온교회 담임목사

· 구입문의: 조영만 목사 010-5355-2584, 이규필 목사 010-7474-3173

※ 여러권을 구입할 경우 할인하여 드립니다.

조영만 목사 지음
/정가 10,000원

- 조영만 목사 -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할수록
저자의 양심을 괴롭히던
죄 문제와 자기 의를 해결하기 위해
3일 금식도, 7일, 10일, 20일,
결국에는 40일 금식기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과 말씀에 전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자신이 40일 금식을 100번 한다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은 깨닫지 못한 존재요,
죄인 중에 과수원을 깨닫고 모든 율법의 행위를 그치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게 되었는데
이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죄와 사탄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거듭난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기쁜 소식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발판으로 기록된 글들을 통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의문의 묵은 것에서 영의 새로움 것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저자 '책 머리에' 중에서 -